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일시 2015년 9월 16일(수) 14:00~17:00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4:00~17:00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 관 한국도서관협회 Korean Library Association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및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안내

■ 개최개요

- ❍ 개최목적 : 도서관 자원봉사의 교류 및 활성화 촉진과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공모전의 시상식을 실시하고자 함.
- ❍ 일　　시 : 2015. 9. 16.(수) 14:00 ~ 17:00
- ❍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 ❍ 주　　관 : (사)한국도서관협회
- ❍ 참가대상 : 전국 공공도서관 자원봉사 담당자 및 자원봉사 유관기관 관계자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3:30 ~ 14:00	등록 ※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	
14:00 ~ 14:10	인사말	
14:10 ~ 14:30	공모전 시상식 진행	한국도서관협회
14:30 ~ 14:40	휴식	
14:40 ~ 15:20	특별 공연 '토끼의 간'	박달도서관 동화구연 자원봉사단 "행복한 의자나무"
15:20 ~ 16:00	특별 강연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관리와 갈등해결'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
16:00 ~ 16:30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김영림 (동작상도국주도서관 "꿈꾸는 도토리" 자원봉사자)
		서단비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사서)
16:30 ~ 16:50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수기	이지은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
		정선화 (성남시수정도서관 자원봉사자)
16:50 ~ 17:00	질의 · 응답	

Content

【사업개요】 ····· 3

■ 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개요 / 한국도서관협회 ····· 5

【특별 강연】 ····· 11

■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관리와 갈등해결 / 강정모 ····· 13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 23

■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들 “꿈꾸는 도토리” / 김영림 ····· 25

■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빅마마” / 서단비 ····· 39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수기】 ····· 49

■ 기름 세 방울 / 이지은 ····· 51

■ 봉사활동을 통해 찾은 나와 가족의 변화 그리고 행복 더하기 / 정선화 ····· 5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사업 개요

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개요

한국도서관협회

【사업개요】

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개요

한국도서관협회

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10년 기 구축한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www.webrary.or.kr)의 운영 및 도서관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 주　　관 : (사)한국도서관협회

❍ 주요내용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www.webrary.or.kr) 운영
  - 홈페이지 유지 관리
-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공모전 개최(5월 18일[월] ~ 6월 19일[금])
  - 도서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훌륭한 자원봉사 사례와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을 통하여 도서관 자원봉사 문화 확대에 기어코자 함.
-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9월 16일[수])
  -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도서관 및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모전 사례 발표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경험 공유 등 도서관의 자원봉사문화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개최(예정)
  - 개별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자원봉사문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공모전

❍ 공모시기 : 2015년 5월 18일(월) ~ 6월 19일(금)

❍ 공모분야 : 총 4개 분야

❍ 공모전 선정 심사 개최(7월 8일[수])

❍ 공모전 선정 결과 발표(7월 13일[월])

❍ 공모전 결과

[부문 1]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공모

수상	도서관명	사례명
대 상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들 “꿈꾸는 도토리”
우수상	서울용동초등학교	봉사와 독서로 기쁨이 두 배가 되는 책누리 어린이사서 활동 -서울용동초 책누리 어린이사서 자원봉사 사례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의미 있는 배움 · 나눔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학부모자원봉사단 충북교육사랑봉사단 동동맘과 청소년자원봉사단 책읽어 주는 언니오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성화
장려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개포아띠 자원봉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	오늘은 민준 엄마 말고 도서관 엄마! (브라보, 인생2막)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실버 재능기부 프로그램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
	만평주민도서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소통공간 만평주민도서관
	통진도서관	통진도서관, 우리가 만나 세상을 바꾸는 힘.
	안양시립박달도서관	박달도서관 동화구연 자원봉사단 ‘행복한 의자나무’
	오산시중앙도서관	재능공유로 활성화된 도서관 자원봉사
	용인중앙도서관	용인중앙도서관 자원봉사단체「꿈꾸는잎싹」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지산초록도서관 자원봉사단 ‘책아띠’ 활동사례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빅마마」

[부문 2]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수기 공모

수상	응모자명	소속도서관	수기명
대 상	이지은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기름 세방울
우수상	김혜숙	천왕동 연지1동 작은도서관	도서실은 내 집이야!
	정선화	성남시수정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찾은 나와 가족의 변화 그리고 행복 더하기
	전승후	청주기적의도서관	3년간의 뜻 깊은 봉사활동
장려상	김선애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내가 '출근' 하는 그 곳
	구효정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영어도서관	부산영어도서관의 하이라이트 'Reading Buddy'
	전정아	통진도서관	느리지만 꾸준히, 내 삶의 한 부분인 '나눔 실천'
	최은영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봉사와 나
	윤정남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도서관은 거인의 다리, 요정의 날개
	장유리	진영도서관	내 인생의 채움 · 비움 · 나눔

[부문 3]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사진 공모

수상	단체/도서관명	사진명
대 상	양청중학교 꿈다독임독서동아리	'꿈 다독(多讀)임' 독서동아리의 '소통' 하는 책 읽기
우수상	강서영어도서관	스토리 홀릭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Mark의 텐텐 잉글리시
	F.O.S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동아리)	'그린나래' 그림책과 함께하는 독서 교실 프로그램
장려상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선유고등학교 특수반 학생의 서가 점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세상
	통진도서관	찾아가는 북수레 이동도서관
	안양시립박달도서관	행복한 의자나무 동화잔치
	제천기적의도서관	할머니할아버지동아리 '호랑이담뱃대' 의 '어린이단오잔치-얼쑤좋다 단오가세!' 민속프로그램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어울렁 더울렁' 동아리의 자원봉사활동

[부문 4] 도서관 우수 자원봉사자 추천

자원봉사자명	추천 도서관명
강희숙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덕평생학습관
권명자	청주기적의도서관
김정아	송정도서관
김지원	계룡도서관
노경난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류현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봉도서관
박지숙	꿈두레도서관
서대성	통진도서관
안명희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양리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
양화자	정읍기적의도서관
왕현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이귀순	포항시립 대잠도서관
이미자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이선옥	노원정보도서관
이영숙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이영실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이영애	진영도서관
임주연	달서어린이도서관
임준희	용인중앙도서관
임채림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정선화	성남시수정도서관
정수진	아리랑 정보도서관
정영진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정유진	연수청학도서관
정혜영	구미봉곡도서관
최순희	푸른길도서관
최은영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최지원	강서영어도서관
홍순미	담작은도서관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특별 강연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관리와 갈등해결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
강정모

【특별 강연】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관리와 갈등해결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관리와 갈등해결

강정모[1](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

1.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관리의 이해와 현실

자원봉사 관리자는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 제한된 자원, 윤리적 딜레마 등으로 인하여 동료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2]들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담당하는 관리자들과 성격과 조직문화가 다르다.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NGO단체는 사회와 사람의 문제를 다룬다.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자들도 사람이다. 주요업무와 자원봉사관리업무가 동일하게 사람과 조직관계에 기반한다. 이에 비해 도서관 관리자들의 주요업무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이지 않은 '정보'를 다룬다. 하지만 자원봉사 관리는 사람과 관계이다. 자신의 전문성과 주요업무와 자원봉사 관리업무가 특성상 동일하지 않다.[3] 관계와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관리업무의 특성상 도서관 관리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래서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는 반드시 일어난다. 자원봉사나 종교와 같이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목적으로 모인 집단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갈등은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이 둘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물을 봐도,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느낌과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는 성별, 연령, 가치, 욕구, 성격, 지역, 학력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광범위 한 도서관 자원봉사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많다. 자원봉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원봉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유급관리자–도서관이용자의 역학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도서관 현장에서 주요업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때 자원봉사자들을 잘 리드하고, 관리자들과 자원봉사자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창조적

---

1)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관리자 자격과정 강사, (사)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

2) 자원봉사업무담당자의 호칭은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관리자, NGO단체는 활동가(Activist) 또는 간사이다. 도서관의 근무자는 사서이나 자원봉사를 다루는 본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자로 통일했다.

3) 이와 유사한 분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주요업무는 자연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직원들은 도서관 사서들과 유사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다.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주요업무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잘 다루고, 자원봉사자들의 일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량이 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관리자들은 자원봉사관련 교육훈련이 미비된 채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원고와 강의를 위해 나는 인천에서 30여년이상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 했다. SNS로 맺어진 관계였으나 도서관 자원봉사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하시면서 아주 상세히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관련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다. 이 분 말씀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는 대학전공자(물론 자격소지자)와 사서자격자분들의 교육과정에 자원봉사자 관리분야는 없다고 한다. 이후 보수교육이나 전문성 함양교육에서도 개인적으로 30년 이상 근무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소 당혹스런 질문을 드렸다.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그럼 도서관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도서관협회에서 원고와 강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나에게 제시한 자료[4]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가 2008년 당시 18만명이라고 나와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2,137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2천억원이 넘는 가치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리자들에게 자원봉사 관리교육은 아주 미흡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관련업무는 점차 기피업무가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인간은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사서분들은 더욱 피곤할 것이다. 이런 현실은 자원봉사자들의 방치나 소외로 나타나고, 전반적인 도서관 관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의 일반적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2. 갈등의 기본이해

사람은 모두 다르다. 성별, 연령, 성향, 경험과 문화, 욕구와 동기, 가치관이 다르다.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다. 사람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회피(혹은 방어)하거나 제거해버리고자 한다. 하지만 갈등은 피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갈등은 오직 관리되어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transformation)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혼자하는 활동이 아니다. 자원봉사는 팀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갈등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일차적으로 갈등 발생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조직이나 활동에서 전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상황은 전체주의국가, 광적 사이비 종교집단, 독재국가

4) 국내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분석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2008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메뉴얼에 관한 연구" 수정보완본

에서 운영하는 수용소 같은 곳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갈등이 없는 곳은 문화적으로 병든 곳이다. 한 조직이나 사회가 건강할수록, 민주적이다. 하지만 갈등이 많고, 시끄럽다. 반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는 고요하고, 일사분란하며, 갈등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갈등은 오히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건강한 조직일수록 갈등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허용되고 구성원들이 그 갈등을 표면화시켜 다루는 역량이 높다. 도서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갈등은 회피하거나 숨길 때 오히려 증폭되는 특징이 있다. 갈등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관리하는 주요 과정이다. 갈등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갈등은 표면화시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갈등을 표현하고, 당사자 간에 공유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동일 집단 간에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표면화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면 갈등을 드러낸다는 것은 홀가분한 경험이며, 공감받음을 통해 안전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갈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복잡한 것, 짜증, 답답, 골치 아픈 것, 불편한 것, 피하고 싶은 것, 마음의 상처, 화, 분노가 일차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과 달리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갈등은 개인과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민주적 가치가 확산된 현대사회에서는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요소로 그 의미가 다양화되었다. 갈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조직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동기를 주고, 긍정적인 조직의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히 갈등하는 조직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중심으로 볼 때 유능한 자원봉사 관리자란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조직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는 문제가 없는 조직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지루한 조직이다. 오히려 갈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적절한 긴장감이 있는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조직이다. 이 때의 갈등을 Eustress라고 한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면 조직원들은 사안과 조직에 대해 기대를 접고, 낙담하고, 자신과 조직을 별개로 여겨 조직은 무질서하게 된다. 이때의 갈등을 Distress라고 한다. 이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링겔만 현상[5]이다. 이때는 상호조정능력과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갈등이라는 시한폭탄을 돌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갈등관리의 역량은 '차이' 또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낮은 수준의 수용력을 가진 개인 혹은 조직의 내적 메시지는 '너하고 나는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린 함께 할 수 없어' 즉 갈등의 원인을 전적으로 타자에게 돌리는 태도이다. 조금 발전

5) 독일 심리학자 막시밀리안 링겔만이 줄다리기 실험을 해보니 혼자 당길 때에는 100%의 힘을 내던 개인들이 세 명이 당기자 85%, 여덟 명이 당기자 49%의 힘만 쓰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반대의 현상으로는 '시너지현상'이 있다.

하면 '너하고 나는 정말 달라. 그렇지만 우린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로 타협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와 같은 이익이 아닌 공공적이고, 가치중심적 활동에는 이상의 태도가 요구된다. '너하고 나는 다른 점이 많아. 그래서 더욱 넌 소중한 사람이야' 즉 관계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활동의 동력으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조직은 활동에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며, 예측된 것보다 수십 배 이상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

3.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갈등양상

이성록[6]은 일반적으로 관리자와 자원봉사자간에 갈등양상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과업의 상호의존적 상황으로 발생한다. 제한된 예산을 놓고 집행에 대한 견해차이와 일정에 대한 견해차이다. 둘째, 목표와 역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일차적으로 자기성장과 보람, 도서관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조직효율성이 우선이다. 셋째, 지각의 차이다. 배경, 가치관, 교육정도, 연령, 정보체계, 사회적 관계유형에 따라 같은 대상과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자원봉사자들은 '사명감'이 활동의 주요동인이고, 관리자들은 '전문성'이 주요동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과정중심의 인지를 갖고, 관리자들은 결과중심의 시각을 갖는다.

이성록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갈등지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위에 대한 불안이다. 자원봉사자의 유능성, 경력, 능력이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에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정보와 서적에 대한 깊은 철학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 활동하는 오랜 자원봉사 경력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서관 관리자보다 훨씬 연령도 많고, 경험도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경험에 따라 전문성도 높아서 역으로 관리자들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관리자들은 괜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고,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자격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도서관 관리자들이 자원봉사 관리파트에 신입 사서들이나 직위가 불안한 계약직 사서들이 배치되면 높은 연령의 오랜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에서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인터뷰한 인천의 30년 사서경력자는 계약직 사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했다. 고용불안에 따른 연속성의 문제를 넘어 계약직은 업무사안 결정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둘째, 서비스질에 대한 우려이다. 관리자들은 위치상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결과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권한 위임을 기피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에 보람을 느낄수록 권한 위임을 더 요청할 것이다. 이를 두고 관리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원봉사자들에게

6)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과 박사, 도봉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현), [자원봉사활동 관리조정론(1995, 서울:학문사)]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부족하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일시적 편의와 단순노동력 지원책, 예산절감 차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적 요인도 따른다. 즉 도서관 정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의 우선순위를 하위로 배치함에 따라 자원봉사 담당 관리자의 잦은 보직이동, 교육훈련의 미비로 자원봉사 관리가 허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관리자들에게 자원봉사 관리업무가 '처리'해 버려야 하는 사안으로 전락될 수 있다. 넷째, 이전의 경험에 따른 기피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배경의 다양함뿐만 아니라 인격수준도 다양하다. 때때로 무책임한 활동, 개인 사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 비인격적으로 관리자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이런 자원봉사자를 겪게 되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수 있다.

이성록은 자원봉사자들 간에 갈등현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것은 '인정경쟁'이다. 자원봉사팀 내에서 동료, 관리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관리업무 분야에서 '인정과 보상'이 있다.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활동의 무보수성의 원칙상 금전적인 것이 되어선 안 되나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력이 낮은 자원봉사자들은 관리자들의 칭찬에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간에 활동경쟁은 공식, 비공식 지위에 대한 경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따른 갈등정도는 비교적 크다. 자원봉사자들이 팀의 지위를 인정과 보상이라고 여길 때 팀에서 정치적 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나 팀의 열심경쟁으로 나타나 활동의 에스컬레이터 현상을 초래하여 기대와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구성원은 소진되게 된다. 그러면 인정경쟁은 불만족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동료에게 돌리는 현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된다.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들 간에 인정경쟁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정해야하고,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자발성에 활동의 토대를 두도록 견인해야 한다.

4.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안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본 원고와 강의를 위해 제시한 참고 자료 중에 〈도서관 자원봉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을 검토하면서 매우 놀랐다. 자원봉사현황 연구자료에서 보이는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 실태에 비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표준매뉴얼이었다. 하지만 과연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분들이 얼마나 〈표준매뉴얼〉을 알고 계실지는 의문이다. 도서관 고위 행정직이신 분들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는 비단 도서관계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몇 분야의 연구를 직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사회의 여러분야에는 〈표준매뉴얼〉이 많이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다. 그렇게 매뉴얼을 연구해놓으면 뭐하냐는 것이다. 매뉴얼이 일선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설혹 내려가더라도 그 두꺼운 매뉴얼을 현장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들여다볼 틈이 없다. 학생들에게 교과서 던져준다고 다 공부잘하는게 아닌 것처럼 연구 및 매뉴얼 발간한다고 그대로 잘 돌아가는게 아니다. 매뉴얼 연구와 발간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걸 가지고 상호간에 교육하고, 워크숍을 해서 소화시켜야 한다. 내용을 소화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많은 시행착오들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눠져야 지혜가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역량이 향상되고, 제도화가 되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도서관 자원봉사의 선진문화 안착은 연구활동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자원봉사의 3대 원칙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이다.[7] 그 중에서 무보수성은 자원봉사가 변화의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참고한 연구보고서[8]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교통비, 식대, 간담회비, 활동경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항목들도 무보수성에 위배된다. 인터뷰를 해주신 사서분께서 제시하신 내용 중에는 자원봉사자와 유급자원봉사자간의 갈등이 있었다. 유급자원봉사는 성립불가능한 단어이다. 자원봉사가 유급이 되는 순간–분명 그 급여는 저렴할 것이다–아르바이트가 된다. 이는 마치 헌혈했는데 돈봉투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건 매혈이지 헌혈이 아니다. 헌혈하는 마음으로 싸게 받았다고 해서 헌혈이 되지 않는다. 그건 그냥 헐값에 내 피를 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은 예산이 필요하다. 투여되어야 할 비용은 자원봉사 전담사서 인건비,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일반 또는 전문), 사서들의 자원봉사 관리역량강화,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전문자원봉사자 일감배치,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식대나 보조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 문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문제이다. 본질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최소한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일반, 전문교육과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식대, 교통비 등과 같은 실비를 자신이 기꺼이 부담하면서도 기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한 논문[9]은 주제가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모두 도서관계의 전문가분들이었다. 연구의 내용과 수준과는 관계없이 내가 아쉬운 것은 자문위원까지도 모두 도서관계의 전문가들이었다. 연구원까지는 아니라도 자문위원 정도는 자원봉사자를 늘 가까이 하는 사회복지계, 자원봉사계, NGO, 주민자치위원들이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앞서 각주2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서관 자원봉사 현장과 매우 유사한 현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연구원을 두고 있다. 연구원은

7) 내가 2015년부터 주장하는 바는 21세기 자원봉사의 필수가치로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사명감에 초점이 있고, 자원봉사관리자는 전문성에 비중을 두지만 봉사자든 관리자든 선진자원봉사문화로 가려면 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관심영역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봉사자는 전문성, 관리자는 사명감을 함양해야 한다. 그래야 자원봉사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

8) 조찬식, 조미아, 오지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9년 11월. 문화관광부

9) 조찬식, 조미아, 오지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9년 11월. 문화관광부

2년여에 걸쳐 국립공원관리의 매우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자원봉사자들의 효과적인 관리와 교육체계수립을 위해 자원봉사실태 연구보고서와 그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활동가(자원봉사리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를 발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교육이 실시하였고, 진행 중이다. 이 때 연구와 교재발간에 국립공원연구원을 포함하여 NGO전문가, 자원봉사 현장실무자, 갈등교육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는 상호간에 이종(異種)현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관리자들은 사람과 조직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NGO전문가, 자원봉사전문활동가, 갈등교육전문가는 국립공원이라는 거대한 공공재와 자원봉사의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게 되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은 자원봉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의미있고 보람된 사서업무를 위해 도서관에 인접한 자원봉사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들 “꿈꾸는 도토리”

동작상도국주도서관 “꿈꾸는 도토리” 자원봉사자

김영림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빅마마”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사서

서단비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들
“꿈꾸는 도토리”

김영림

동작상도국주도서관 “꿈꾸는 도토리” 자원봉사자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들 “꿈꾸는 도토리”

1. 개 요

2009년 10월 도서관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던 동작구 상도동에 기존의 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상도국주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기대들이 피워 오르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의 열정이 식어갈 무렵,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쉬어가던 어머니들이 “우리”가 한번 뜻을 모아서 참여하고자 도서관 자원활동가 “도토리”를 탄생시켰습니다. 5명의 어머니가 처음 모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쉬운 것부터, 즐길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해보자는 다짐을 시작으로 6년 간 50명이 넘는 든든한 도서관의 버팀목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직접 부딪혀 느껴보고 체험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온 “꿈꾸는 도토리”는 이제 상도국주도서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형성된 ‘운동성’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확산되어 ‘찾아가는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사업’, ‘숲속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문화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 도서관 소개

책을 형상화한 독특한 모양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도국주도서관은 2층 규모의 아담한 공간입니다. 어린이자료실, 장난감 대여점, 세미나실, 종합자료실과 하늘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만 5천권의 장서로 지역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성상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탓에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동작구 명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위해 4명의 도서관 직원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동작구 내의 6개 구립 및 작은도서관과 함께 상호대차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꿈꾸는 도토리 연혁

❍ 2011년 6월 도토리 발족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5명의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

❍ 2011년 10월 독서 봉사활동으로 도토리 자원봉사 시작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엄마표 독서교육 진행
❍ 2012년 1월 꿈꾸는 도토리 결성
도서관의 봉사모임 “도토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꿈꾸는 도토리”로 활동 확대
❍ 2012년 3월 상도국주도서관 정기 자원봉사 진행
유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책과 노니는 도토리 교실’운영
❍ 2012년 10월 상도국주도서관 3주년 기념행사 참여
도서교환전,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스 운영
❍ 2013년 5월 ~ 10월 부모 커뮤니티 사업 “충효길 걸으며 문학과 친구해요” 활동
❍ 2013년 5월 ~ 숲속 도서관 꿈꾸는 도토리 개관
❍ 2013년 10월 제1회 숲속 문화제 “도토리 잔칫날” 개최
❍ 2014년 9월 서울시 마을이야기 행사 참여
서울시 마을이야기 자치구 한마당 “동작 쿵짝” 참여
❍ 2014년 11월 제1회 숲속 문화제 “숲에서 놀자” 개최

4. 꿈꾸는 도토리 방향

❍ 엄마표 나눔교육을 실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일기장 끄트머리에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라는 한 줄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꿈 하나를 위해 꿈토리는 ‘엄마표 나눔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함께 사는 참된 삶을 배웁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게 말을 걸고, 작은 꽃에 웃음 짓고, 거친 흙도 마다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토리는 서달산 산책길에 주인 잃은 낡은 초소를 빌어 숲속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소박하고 다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꿈꿉니다

그저 내가 좋아 하는 일이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나눔’이라 말합니다. 꿈토리의 지역사회 나눔사업은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더 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도서관을 통해 세상을 바꿔갑니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책 속에 담긴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도서관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우리’를 위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5. 주요 활동 사례

가. 책과 노니는 도토리 교실

– 매주 수요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후 활동 진행
자원활동가 어머니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찾아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 어울려 뛰놀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독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그리고 문화를 통해 즐기고 배울만한 다양한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배워나가는 정기적인 활동입니다.

그림책 읽고 그림그리기

그림책을 함께 읽고 느낀 점이나 책에 나온 인상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이야기 해보는 독후 프로그램

디베이트 : 가정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일정 주제를 정하거나 함께 책을 읽고 논제를 만들어 찬반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해 보는 프로그램

초등, 유아 통합프로그램 : 지렁이가 꿈틀 꿈틀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지렁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렁이와 관련된 책을 통해 지렁이의 다양한 특성과 환경들을 알아보는 시간

초등, 유아 통합프로그램 : 알록달록 색깔 초콜릿의 비밀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초콜릿의 유래와 성분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보는 시간

식빵 인형 이야기

식빵 위에 과자와 시럽, 초콜릿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상의 표현을 해보는 시간

독서 도전 골든벨 !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퀴즈를 풀어가는 독후 프로그램. 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역사 문화 기행 : 여주, 왕후를 만나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역사 문화 기행 진행

크리스마스 트리 손수건 만들기

크리스마스를 맞아 손수건에 개성 있는 트리를 그려보고 함께 이야기 해보는 시간

3.1절 독립운동과 태극기

삼일절에 대해 알아보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의견 나누기

강감찬과 귀주대첩

역사적 인물에 대해 책을 통해 알아보고 독후활동으로 갑옷 만들기 진행

역사달력 만들기

교과수업을 벗어나 체험을 통해 역사를 공부해 보는 시간. 기념일과 국경일의 의미,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배운 후, 인상 깊었던 사건을 토대로 자신만의 역사 달력 만들기

나. 상도국주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참가

– 매년 진행되는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부스 운영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자체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자원활동가들이 도서관의 한 가족임을 알리고 도서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문화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서관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라는 인식하에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꿈꾸고 도서관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도서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 2014 서울 마을 이야기 부스 운영

– 도서관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으로 그 빛을 발하다
급속한 도시화와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도시의 삶은 피폐해지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시민들이 직접 치유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도서관을 통해 만들어진 자원활동가들이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마을 사업까지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뿌리를 둔 마을 운동가들이 생겨나면서 도서관은 좀 더 힘을 얻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출발한 ‘꿈꾸는 도토리’는 지역 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 동작 충효길 숲속 도서관 운영

– 도토리가 만들고 함께 누리는 숲속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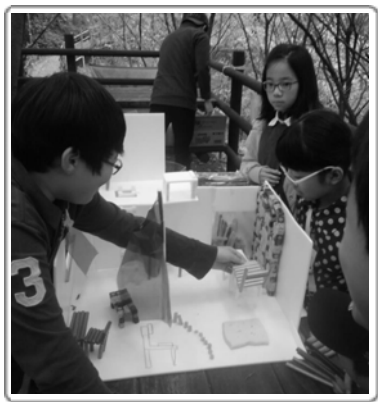
숲속 길을 걷다가 한적한 공간에 방치되다시피 한 산림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 자그마한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작구의 지역명소인 동작충효길의 코스인 ‘고구동산길’에 위치한 이곳이 “꿈꾸는 도토리”를 만나 도서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숲길을 거닐다 잠시 쉴 수도 있고 책도 보고 사색에 빠질 수 있는 근사한 공간입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싶었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공간의 부족으로 머릿속에만 담아 두었는데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부활시킬 수 있었고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어울려 노는 아이들을 통해서 ‘힐링’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을 통해 ‘도토리’는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 숲속 건축교실

“책상 밖 숲속에서 창의적인 통합예술 건축의 즐거움을 접하다”

꿈꾸는 꼬마 건축가	직접 건축가가 되어 내 이웃의 집을 설계하는 활동
비밀의 방 만들기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구성해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난이도 높은 활동이지만 독창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정
숲속 아지트 만들기	친환경, 재활용 재료들과 숲에서 구할 있는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숲속의 최소한의 공간인 아지트를 만들어 건축을 감각적으로 느껴보기
우리마을 만들기	현재 마을의 문제점과 미래도시를 구상해보고 직접 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함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인원 : 24명 이내
- 장소 : 상도국주도서관, 숲속 도서관, 숲속 유치원, 숲속 야외무대 등
- 효과 : 팀 작업으로 협동심과 의사소통,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독창성, 통합적 사고능력 등을 배양



2) 숲속 연극교실

"책읽기를 통한 상상력을 자연과 함께 몸으로 표현하는 즉흥적인 연극놀이"

- 숲속 도서관의 책 놀이
- 책과 함께하는 숲속 탐험가 되기
- 다양한 역할 놀이(연극활동)
- 책과 함께 책의 내용을 몸으로 경험하는 역할 놀이는 내가 아닌 다른 인물이 되어봄으로써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대상 : 미취학아동(6-7세) 및 초등학교 1-2학년
- 인원 : 20명 이내
- 장소 : 상도국주도서관, 숲속 도서관, 숲속 유치원, 숲속 야외무대 등
- 강사 : 어린이 청소년 연극 전문집단 북새통
- 효과 : 책도 읽고 책의 내용을 몸으로 경험하는 역할 놀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 동작구 어린이집 책 읽어주기 재능기부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토리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지역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책도 읽어주고, 책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낯설고 어려워했지만 도토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서 자원활동가 어머니들은 의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책과 친해지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책읽기 습관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독후 체험 놀이를 기획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놀이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모여서 공부하는 등 식지 않는 열정으로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연번	일시	내용	비고
1	2014.03.03	콩닥콩닥 생태교실(영아반, 유아반)	관련 그림책 활용
2	2014.03.10	신나는 책놀이 교실	
3	2014.04.01	콩닥콩닥 생태교실	관련 그림책 활용
4	2014.04.18	조물조물 요리교실	
5	2014.05.12	신나는 책놀이 교실	
6	2014.05.13	콩닥콩닥 생태교실 : 꿈틀꿈들 지렁이	관련 그림책 활용
7	2014.05.13	신나는 책놀이 교실 : 심심해서 그랬어	
8	2014.05.13	조물조물 요리교실 : 카나페 만들기	
9	2014.05.23	조물조물 요리교실	
10	2014.06.03	콩닥콩닥 생태교실 : 꿈틀꿈들 지렁이	관련 그림책 활용
11	2014.06.09	신나는 책놀이 교실 : 나의 얼굴	
12	2014.06.20	조물조물 요리교실 : 경단 만들기	
13	2014.07.01	콩닥콩닥 생태교실 : 꿈틀이 만들기	관련 그림책 활용
14	2014.10.07	콩닥콩닥 생태교실	관련 그림책 활용
15	2014.10.13	신나는 책놀이 교실	
16	2014.11.21	조물조물 요리교실 : 오늘은 김장하는 날	
17	2014.12.02	콩닥콩닥 생태교실 : 장갑 꾸미기	관련 그림책 활용
18	2014.12.19	조물조물 요리교실 : 스파게티 만들어요	
19	2015.01.23	조물조물 요리교실 : 참치 김말이	
20	2015.02.03	콩닥콩닥 생태교실 : 지렁이 똥 이야기	관련 그림책 활용
21	2015.02.12	조물조물 요리교실 : 레인보우 케이크	

6. 주요 성과

가. 지역 공공 도서관의 방향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도서관=독서실'로 한정지어졌던 암울한 시기를 지나 이제는 도서관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 문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들려옵니다. 공공도서관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도서관의 주 이용자도 어린이와 부모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모습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하지만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공공도서관은 "팥 없는 찐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과거의 공부방 역할만을 담당했던 도서관이 아닌, 책을 빌려주는 역할만을 전부로 볼 수 없기에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벗어난 변신(?)으로 도서관이 아닌 마트의 문화센터 혹은 취미학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점점 더 지역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주민들을 만나고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도서관 자원활동가'입니다. 이들의 작은 시작이 도서관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 도서관 자원봉사에서 마을 활동가로

도서관에서 모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낸 날들이 모여 작은

마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하는 진짜 공부를 찾아서 직접 배우고 부딪혀서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책을 읽으며 소통을 하고 그 느낌과 감정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을로 뛰어들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어머니들도 늘어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 마을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발견

도서관 자원활동가 ‘꿈꾸는 도토리’는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진하며 만들어 온 공동체입니다. 도서관의 ‘책’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나고 그 철학과 운동 정신을 토대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가는 마을 문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도서관의 가치는 곧 마을의 문화에 뿌리를 갖고 있으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자원활동가 모임이 마을 공동체 단체로 확장되었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알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과제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7. 향후 계획

가. 도토리 6기 모집 및 양성과정 교육

우리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지역 주민을 모집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도서관 자원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인문학 독서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그 힘을 도서관 및 지역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발현해 나갈지를 고민해 보는 모임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어떤 모습으로 빛을 내고 자원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알아가는 교육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나. 보수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의 역할과 철학의 이해

먼저 보수교육 형태로 자원봉사의 역할과 그 철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수년간 도서관 자원활동을 통해 얻은 보람과 다양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빅마마”

서단비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사서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빅마마”

1. 개 요

독서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에 독서의 필요성, 독서문화의 저변확대, 사회적평등기회의 확장 등을 위하여 2007년 8월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은 제천시가 건립하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책을 복지서비스의 매개체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독서복지를 지향하는 기관으로서 책읽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주민 개개인의 내적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근간을 어린이 책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복지 및 여가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2. 도서관 소개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은 책을 복지서비스의 매개채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독서복지를 지향하는 기관으로서 책읽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주민 개개인의 내적성장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며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책을 매개체로 광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협의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독서·문화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약 150,000명의 이용자가 기관을 이용하여 작은도서관 중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와 연계하여 학교 및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중 복지형 분야에 해당하는 노인사서일자리를 창출하여 전문사서 교육을 수료한 노인을 선별하여 건강한 독서환경과 도서관문화 정착 및 인력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연 2회 노인일자리 사서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전경

3. “빅마마” 소개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의 설립 취지인 책을 매개체로 지역내 독서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08년에 결성하여 주요서비스 대상인 아동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관 및 외부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및 반납서비스, 서가정리, 신착도서 등록 및 배가작업 등 기본적인 도서업무와 더불어 찾아가는 도서지원서비스, 북스타트, 책날개북스타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관 및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빅마마” 단체사진

4. “빅마마” 연혁

❍ 2008년 1월
- “빅마마” 1기 발족 및 발대식

❍ 2008년 3월 ~ 현재
- 찾아가는 도서지원서비스 실시

- 도서업무 교육 (연1회)
- 문화소외계층 방문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실시
- 제천시북스타트 발족 및 지원활동

○ 2009년 1월
- “빅마마” 2기 발족 및 발대식
- 북스타트책날개 지원활동 실시 (연1회)

○ 2010년 9월 10일~11일
- 2010북스타트 전국대회 참가 및 지원활동

○ 2010년 12월 ~ 현재
- 북스타트 오픈데이 참가 및 지원활동 (연1회)

○ 2011년 5월 ~ 현재
- 제천시 북스타트 길거리 캠페인 참가 (연1회)

○ 2015년 5월 23일
- 제천북스타트10주년 기념행사 참가 및 연계지원

5. 주요 활동 사례

가. 도서관 내 봉사활동

도서업무교육 등을 통해 전반적인 도서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건강한 독서문화 조성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실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서대출 및 반납서비스
- 관 내 독서대출·반납 시스템인 책꽂이, 독서통장 시스템을 교육을 받아 매 주 목요일에 방문하여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착도서 등록작업
- 신착도서 수령 시 도서 분류, 청구기호 및 바코드 부착, 신착도서배열 등 도서 등록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 내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도서정리 및 서가배열

– 도서관의 특성 상 아동들의 이용이 많아 쉽게 어지럽혀지는 서가를 정리하고 청구기호에 따라 서가를 재배열하여, 이용자들이 빠르고 쉽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도서 보수 작업

– 관 내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도서를 직접 선별하여 도서보수 작업을 돕고, 고서 및 중고서적을 분류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서점검

– 관 내 연 1회 장서점검 시 도서업무교육 및 기존의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서와 함께 장서점검을 진행하고, 보조역할을 수행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능나눔 실천

–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 실천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 · 보조 하고 있으며, 책의 날 및 독서의 달과 같은 특별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 봉사활동

신입회원 교육

신착도서 등록작업

도서 대출 및 반납

서가정리

도서보수

장서점검

특별행사 봉사(재능나눔)

프로그램 진행(재능나눔)

도서관 환경정리

나. 북스타트(북스타트, 책날개, 제천북스타트 등)

사회적 육아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북스타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영아와 부모가 그림책을 매개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빅마마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 1회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책날개북스타트 사업을 실시중이며, 책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서를 권장하고 학교도서관 이용안내 및 도서관교육을 통해 독서의 참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내 북스타트데이를 매주 목요일로 정하여 연계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많은 주민들이 북스타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 문화복지의 키우고자 합니다.

❍ 북스타트 교육수료
- 매달 본 기관 및 기적의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북스타트 교육을 수료하고 그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자들에게 쉽게 전달하여 도서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북스타트 책꾸러미 전달 및 사전준비
- 책 꾸러미 수령자의 수령가능 여부, 대상자 파악, 기타 사전준비 등을 통해 수령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기타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책날개북스타트
-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책날개북스타트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관 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그림책읽어주기, 책꾸러미 전달, 책놀이 등을 직접 진행하며, 올바른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제천북스타트
- 지역 내 도서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북스타트, 책날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영아·아동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북스타트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북스타트 길거리캠페인에 참가하여 북스타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천보건복지센터를 월 1회 방문하여, 책꾸러미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소 이용자 뿐 만 아니라 관 내 지역주민 모두가 북스타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북스타트나눔장터에 참여하여 판매수익금을 제천북스타트로 기부하고 그 중심에 빅마마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봉사활동

북스타트 교육

제천보건복지센터 북스타트 활동

북스타트 길거리캠페인

책날개북스타트

다. 찾아가는 도서지원서비스

2008년 동아리 구성 초의 대표적 활동으로 한부모가정, 노인, 소외계층아동 등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도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 4회 실시하며, 대출·반납서비스, 그림책 함께 읽기, 책놀이 등 동아리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15개 기관에 서비스 중입니다.

그 대상기관이 다양한 만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매달 독서복지교육을 진행하고 대상기관 방문 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독서교육
- 서비스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그림책 선정 및 독후활동 등의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매월 초빙하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방문 도서대출 서비스
- 유치원, 어린이집을 매주 2회 방문하고 있으며, 1기관 당 약 50권을 대출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노인정 '쉼' 프로그램
- 읽기 쉽고 흥미로운 그림책을 직접 선별하여, 매주 1회 노인정을 방문하고 약 60권의 그림책을 대출서비스 하고 있으며, 그림책 대출 뿐 만 아니라 담소를

나누며 노년의 고질적 문제인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주고 책을 이용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문

–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매주 4회 방문하고 방문 시 책꾸러미에 약 50권을 대출서비스 하고 있으며, 그림책 읽어주기와 더불어 독후활동을 통해 독서에 친숙하지 않은 아동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운영일지를 직접 작성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여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원 스스로 모색하며 책이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에 근간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찾아가는 도서지원서비스

책꾸러미 사전준비

노인정 방문 – ‘쉼’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방문

활동내용 소식지 게재

활동내용 소식지 게재(2015.1호)

활동내용 소식지 게재(2015.2호)

6. 봉사활동 수기

빅마마 지순도

제천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자고 시민단체에 힘을 보탤 때에는 내가 자주 들러 봉사를 다니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한울타리도서관...
나는 지금 도서관의 이름처럼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며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주 읽을 책을 고르고, 다시 가방에 담고 또 차에 싣고 대출하러 다녀오면 어느새 나의 오전은 항상 나눔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낡고 해진, 보수할 책들을 쌓아두고 있어도 부자가 된 것 마냥 든든하고,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늘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한울타리도서관 가족들이 있어 봉사활동 가는 날이 늘 기다려진다.
다녀와서는 괜시리 뿌듯하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소문내고 싶은 그런 날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인 줄 깨닫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

빅마마 신윤미

친구의 권유로 찾은 한울타리도서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낯설었지만 왠지 따스한 느낌에 기분이 좋았다.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로 맞아주던 신백가족들의 환한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빅마마 식구들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책꾸러미도 싸고, 낡은 책에 새로운 옷을 입히며 1주일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이야기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늘 돌아갈때가 되면, 가슴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듬뿍 담아가는 것 같아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다.
봉사라...사실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사명감이 남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나는 시간이 없고, 아이들의 엄마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갖가지 이유를 핑계로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울타리도서관관 빅마마가 된 후부터..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 할 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나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주 멋진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루하루,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목요일이 있어서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그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수기

기름 세 방울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
이지은

봉사활동을 통해 찾은 나와 가족의 변화 그리고 행복 더하기

성남시수정도서관 자원봉사자
정선화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수기】

기름 세 방울

이지은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

기름 세 방울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
이지은

“엄마는 왜 월급도 안 나오는 도서관에서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거에요?”
작년에 중학생이 된 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외 봉사활동을 알아보다가 불평하듯이 제게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럽더군요. 10년간 한 일인데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의 고민 끝에,
“내가 하고 싶고, 하고 나면 보람 있으니까 하는 거지.”라고 했더니,
“에이, 말도 안 돼.”하면서 믿지를 않더군요.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처음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은 2005년입니다. 그 해 2월에 개관한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개관 전부터 우리 동네의 관심거리였죠. 개관 후 저는 그 당시 5살이던 아이를 데리고 거의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10시에 개원하는 우리 도서관에는 연령대 별 수많은 어린이 책은 물론, 편안한 분위기로 아이가 잘 수 있는 작은 배려의 공간도 있어서 집에서 아이를 보육했던 저에게는 어린이 집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여러 가지 문화교실도 있었는데 그 중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동화구연 시간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동화구연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도서관 사서선생님께서 제게 살짝 오셔서 당분간 목요 동화 구연 시간에 책을 읽어 달라고 하셨지요. 어차피 집에서 두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던 가락이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성심껏 준비해서 도서관에 온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때 반짝이는 눈동자로 제 목소리와 이야기에 집중하며 저를 바라보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네요. 처음이었던 저를 무한한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던 아이들에게 고마웠던 마음이 더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이 되어 책 읽어주는 일은 아니지만, 목요일마다 서가도 정리하고 가끔 떠드는 녀석들한테 살짝 조용히 하라고 귀띔도 해주고 검색대에서 웹툰이나 인터넷서핑에 빠져있는 아이들한테 책도 좀 보자고 얘기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는 사서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책 찾아주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하고, 바쁘실 때 대출, 반납업무도 하다 보니 매주 3시간의 짧은 봉사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되돌아보면, 육아고민으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서툴렀던 초보 엄마 시절, 외벌이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책을 아이가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아이가 책에 빠져 있는 시간에는 제게 휴식 공간이 되어 주었던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저는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하는 봉사 활동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되어 그 혜택을 나와 비슷한 부모님들이, 또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다면 매주 3시간의 봉사는 도서관을 잘 굴러가게 하는 바퀴의 세 방울의 기름칠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도서관의 혜택을 듬뿍 받은 제 아이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큰 아이라 봉사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시간만 채우는 영혼 없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작년 한해 지켜보았습니다. 1년에 2~3시간하는 봉사활동으로는 그 누구라도 의미를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매주 시간을 정해서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봉사활동이 끝나고 아이가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일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제야 도서관 일이 재미있고 보람도 생기네요.”라고.

텔레비전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구호활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부터 집을 고쳐주시고 지어주시는 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 등 정말로 좋은 일을 웃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의 봉사활동만 하고 그만두지 않더군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곳엔 주저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번은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한번이 시작이 되어 봉사가 이어지면 거기서 느끼는 보람은 회가 거듭될수록 커지지요. 저도 10년쯤 되니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도 이제서야 봉사활동의 첫 맛을 본 것 같네요. 부디 이 맛을 쭉 이어가서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인성이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이 맛을 봐도 괜찮겠지요. 시간과 건강만 허락한다면 우리 도서관에서 매주 기름 세 방울 치고 달콤한 봉사의 맛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수기】

봉사활동을 통해 찾은 나와 가족의 변화 그리고 행복 더하기

정선화

성남시수정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을 통해 찾은 나와 가족의 변화 그리고 행복 더하기

성남시수정도서관 자원봉사자
정선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있는 수정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선화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사서 선생님의 권유로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저의 보람되고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딸 쌍둥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수정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동화 구연 지도자 자격증과정 수업을 듣고 수료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동화감상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자원봉사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잠깐의 오전시간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웠고 집에만 있던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아이 키우고 집에만 있던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였습니다.

아쉬운 것 없이 늘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던 저는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 잘살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배려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이들 지도에 도움도 되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고자 결심하고 공부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예, 운동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 다양한 분야에서 5년째 도서관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니 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지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행복도 배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면 주위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능력도 좋은데 돈이나 벌지 자원봉사는 왜 하냐면서

저를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단기로 끝나는 분들도 많으셔서 항상 혼자 남겨지게 되고 너무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힘들 때마다 도서관 사서선생님들과 가족들의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꾸준히 나 자신과 도서관과의 약속을 지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봉사활동 하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만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수정도서관엔 꾸준히 2~3년 되신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저로 인해 가족모두 봉사에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알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가족이 되어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봉사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카드 포인트 기부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 단체에 매월 기부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켜서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당연히 받아들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학습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동화 구연. 독후활동과 공예수업으로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수업준비 하면서(동화책선정, 독후활동 재료구입, 재료준비)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엄마랑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다 보니 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임신 소식도 함께 기뻐하며 아이들을 저의 동화 구연 수업으로 태교하시고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도서관에만 오면 울던 아이도, 책을 싫어하던 아이도 동화 구연 수업에 참여하면서 책을 좋아하고 독후활동을 통해서 미술놀이도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열심히 수업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시장을 보러 마트나 영화관을 가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가끔 마주치면 항상 저를 알아보시고 꼭 감사의 인사를 해주십니다.

“약속”, “책임감”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입니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꼭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가서 준비하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가장 기본인 것이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보니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봉사활동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 수업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실망도 많아서 나라도 “약속”과 “책임감”없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꼭 지켜야할 나와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도서관 에서 동화 구연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사서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고 도서관 수업과 함께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 친구들이 쉽게 도서관이나 교육기관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후 제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장애학교만큼은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장애아들에게 무슨 동화를 들려줘? 집중할 수 있어?”, “알아듣기나 해?”라며 힘들지 않느냐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곳에서 하는 봉사보다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눈 맞춤도 하지 않고 누워 있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워낙 많은 봉사자들이 다녀가고 단기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진심은 통했는지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단지 돈 받고 도서관에서 잠깐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 강사로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제가 자원봉사자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정말 책임감 강하고 열정적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할 줄 아는 그런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장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의 변화에 정말 놀라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독후활동으로 주는 재료들(종이나, 클레이, 공예용품)을 처음에는 먹기도 하고 찢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먹는다거나 찢거나 하는 일도 없고 기다릴 줄 도 알고 책의 흥미를 많이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로 인해 아이들이 잠시나마 책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이제는 제가 찾아가는 금요일이 되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저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안아주는 친구도 있고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아쉬운 듯 유치원에 있는 책을 꺼내와 읽어달라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저를 기다려주는 반겨주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 하루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들 중에 자폐. 발달장애가 심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눈 맞춤도 없고 수업시간에 교실에도 들어오지 않던 친구가 지난달부터는 손을 내밀어 먼저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며 수업하는 시간동안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도 없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아도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려주니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 내밀어주던 첫날엔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올 뻔 했습니다.

올해는 도서관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셔서 장애학교 아이들이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이들과 도서관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학교 선생님들도 눈치가 보여 선뜻 도서관이란 곳을 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셨다면서 처음 도서관 견학 가는 날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들뜬 마음, 행복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보며 간식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우리는 손잡고 즐겁게 걷는 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저능아냐?” “소아마비 걸렸냐?” 정말 너무나 과한 관심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힘든 일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꽃, 나비, 나뭇잎,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며 학습하고 놀이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도 부르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음이 기다려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자원봉사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말만 들은 것도 아니지만 저를 인정해주시고 기다려주는 아이들, 선생님들, 사서선생님들 덕분에 힘이 되어 지금까지 열심히 자원봉사자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있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소중한 가족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봉사하려 합니다.

시간이 남고 많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날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에서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큰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동화책 가득 들고, 공예재료 가득 들고 맛있는 간식 가득 싸들고 정말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그 큰 꿈을 위해 좀 더 제대로 된 봉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전 지금도 공부는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저의 5년간의 기록을 글로 남겨 놓을 수 있는 뜻 깊은 좋은 시간,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발 행 일 2015년 9월 16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전화 : 044-203-2627

전송 : 044-203-3471

홈페이지 : www.clip.go.kr

(사)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홈페이지 : www.kla.kr

인 쇄 계문사 02-725-5216

Library Volunteer Management System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